

濟州島의 海岸과 山地 地形*

朴 東 源**

화산도인 제주도의 해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여러가지 특색있는 해안지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해안지형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제 4기의 해수면 변화와 제주도 남부의 상대적인 융기현상, 북부의 상대적인 침강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도의 남부 해안에 따라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파식대는 이러한 지형 발달의 조건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남부 중앙부의 파식대는 여러단의 고도가 상이한 파식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부와 서부에서는 파식대의 절대고도가 낮아지고 파식대의 개수도 감소한다. 성산포 일대의 광범위한 파식대는 제주도 최대의 것이라 생각된다.

파식대의 기저부는 지금도 강력한 파식을 받고 있으므로 파식대가 형성된 해안은 아직 유년기의 해안이라 볼 수 있다.

남부 해안에 따라 파식대의 파괴가 계속될 것이며 해안선은 후퇴하고 단순화되리라고 예상된다.

대부분의 사빈해안에는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해안사구는 풍성퇴적물로서 구성되며 이 퇴적물은 주로 피거 제 4기동안 해수면이 낮았을 때 해저에서 공급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차적인 해안사구는 현재에는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해안사구는 대부분 2차적인 것이라 보여진다.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인위적으로 많이 변하여 자연상태하에서

* 본고는 제주도연구회 제 1 차 전국학술대회(1985. 11. 15.)에서 발표된 것임.

** 서울大 地理學科 教授

흔히 관찰되는 표식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 없다.

제주도 산지지형의 근본적인 틀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산지의 미지형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고도 약 1,800m 이상에서 발견되는 구조토·암괴류(岩塊流)와 같은 주빙하지형이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구조토는 유상구조토와 호상(縞狀)구조토·테라스상(狀) 구조토등이며 석렬(石列·stone strife)도 발견된다. 백록담안의 사면에서도 구조토와 암괴류가 발견된다.

구조토와 암괴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국토환경의 변화를 알아 볼 수도 있으므로 제주도의 구조토와 암괴류는 중요한 지형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